

때이른 무더위에 폭염 대응 체제 본격 가동

취약층 도우미 2500명 배치 쉼터 늘리고 살수차 운영 등 광주시·5개 구 대책 마련 5일까지 한여름 날씨 지속

광주·전남지역에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심한 일교차가 예보되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예년보다 빠른 폭염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5일 광주지역과 전남내륙(나주·화순·곡성·구례·순천·광양)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강한 태양빛에 의해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6도, 전남 12~18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전남 26~31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8도, 전남

14~19도로 평년(광주 16.4도, 전남 14.5~15.7도)과 비슷하거나 1~4도 낮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전남 26~32도로 평년(광주 27.5도, 전남 23.9~26.5도)보다 4~6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 떨어지고, 낮 기온은 일사에 의해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무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한차례 비가 내린 뒤 평년(최저기온 15~18도, 최고기온 24~28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올 들어 때 이른 폭염 예보가 이어지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2일 "빨리 찾아온 올 여름 이상 고온 현상 대비하기 위해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달 15일(2008년 폭염 특보 제 도입 이후 가장 빠른 날짜)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9일 뒤인 24일에도 광주와 전남(순천·광양·보성·구례·곡성·담양)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이후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광주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도 2014년(폭염일수 8일) 19명, 2015년(14일) 55명, 2016년(31일) 91명, 2017년(29일) 72명, 2018년(43일) 118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시는 올 여름 폭염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5개 자치구에 폭염취약계층 재난 도우미(2500명)를 배치·운영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도 기존 1285곳에서 1500곳으로 확대하고, 우산형 그늘막 쉼터도 15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냉방비

(3억원) 지원, 살수차 집중 운영, 건설·산업 사업장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용, 119 폭염 구급대(29대) 배치 등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일대에 예산 51억원(국비 15억·시비 36억)을 들여 온도를 내려주는 쿨페이브먼트(차열포장·보도블럭) 등의 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시설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에는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Cooling Fog)도 마련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예년보다 빠른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있다"면서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더위에 취약한 영유아·노약자·임산부는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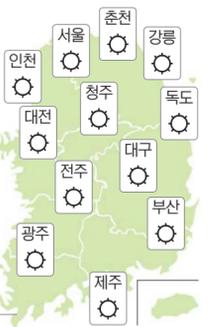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달뜨기 05:11
해질 19:42 달뜨기 19:30

한낮 더위

낮과 밤 기온차 크고 낮에 덥겠다.

광주	맑음	16/30	보성	맑음	12/28
목포	맑음	16/27	순천	맑음	16/29
여수	맑음	18/26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2/30	진도	맑음	14/27
완도	맑음	16/28	전주	맑음	15/30
구례	맑음	13/31	군산	맑음	15/27
강진	맑음	14/29	남원	맑음	14/30
해남	맑음	12/28	흑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2/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서)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22 19:24
여수	02:47 14:53	08:53 21:27

◇ 주간 날씨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8/31	19/31	19/28	18/26	18/28	18/28	18/27

공군 블랙이글스

8일 광주 상공서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광주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친다.

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9) 광주·전남 예선 대회에서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한다.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당일 오전 10시 20분부터 40여분간 이어진다.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가 열리는 광주공항 인근 1전비 부대를 방문하면 에어쇼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블랙이글스는 행사를 이틀 앞둔 6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각각 40여분간 연습비행을 한다. 다만 6일로 예고된 연습비행은 기상 상황이 나쁘면 7일로 늦춰질 수 있다.

공군은 학생들에게 하늘과 우주 꿈을 심어주고 항공우주 과학 분야 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1979년부터 해마다 스페이스 챌린지를 열고 있다.

자유비행(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과 물로켓 부문으로 나눠 초등 1부(1~4학년)와 초등 2부(5~6학년), 중등부, 고등부 경기를 한다. 지역별 예선 입상자(금·은·동)는 9월 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나갈 자격을 얻는다. /박진표 기자 lucky@



나무 그늘 아래 피서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2일 담양군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무부 수감자 호송 모습 비공개...“인권침해 우려”

앞으로는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는 피고인이 교정당국의 호송차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취재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31일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공문을 전국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보내고 시행에 들어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도관 등은 수감자를 호송 차량에서 승하차 하기 전 법원 내 구치감 셔터를 먼저 내려 언론사의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을 방지해야 한다.

박 장관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관행을 없애는

방향을 꾸준히 검찰에 지시해왔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특정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장 지난 31일 재판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정 이동 모습은 닫힌 구치감 셔터 때문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식약처, 납기준 6배 초과한 ‘노니 주스’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를 초과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극동제약품㈜ 제조)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5 mg/kg 이하)의 6배에 달하는 납이 초과 검출(0.28mg/kg)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840ml/들이 1544개 제품인 유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과 환 제품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기도 했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고교생 37명 중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광주교육청 역사 탐방 교육

광주시교육청은 2일 “광주지역 1~2학년 고교생 37명이 이날부터 7일까지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광복회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역사 탐방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광주지역 역사교사 3명과 광주보훈병원 간호사 등 6명이 동행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와 교육도 진행했다.

주요 탐방 사적지는 731부대와 정울성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흥분도 유적지, 발해성터, 백두산 등이다. 중국 대련의 여순 감옥을 방문해 안중근 의사 처형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이회영, 신채호, 최홍식, 유상근 등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끈질기고 찬란한 독립운동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